

삼성전자, 대형 디스플레이 석권

2011년 LFD 세계시장 15.3% 점유 ... 매출액 증가율 42% 달해

삼성전자가 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(LFD) 세계시장을 3년 연속 석권했다.

LFD는 공항, 중앙통제실, 고급 레스토랑, 쇼핑몰 같은 건물 내외부에 설치돼 광고, 교통,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이다.

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 매출 점유율이 2011년 15.3%를 기록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.

특히, LCD(Liquid Crystal Display) 패널 기준으로는 19.2%를 차지했다.

2011년 매출이 42% 증가해 세계 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률 24%보다 2배 높았기 때문이다.

한편, 삼성전자는 4월17일부터 2일간

싱가폴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멀티터치 테이블 디스플레이(SUR40)의 런칭 행사를 열었다.

SUR40은 40인치 풀HD LCD를 이용한 두께가 얇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<픽셀센스> 기술이 탑재돼 카메라 없이도 스크린 상에 닿는 손가락, 물체를 동시에 50여개 포인트까지 인식해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20>